

● 감사헌금

강규복(양영란) 고삼녀 권영자 권치임 김삼순 김상정(김상희) 김성민(부) 김윤숙 김재신 김창희 노만수(박순분) 문무홍(권현자) 문진경 박명옥(홍성인) 박재경(김옥순C) 박춘이 송민식(송혜정) 신경숙 신이건(김해옥) 신현미 양나경 유명호 이선옥 이성만(정영희) 이수남 이영숙 임승호(오영숙) 정성운(이은경) 정순근(송은주) 정승호(최영숙B) 정연란 정외자 정주아 정주혜 주선덕 차창철(김두순) 최규하(최경희) 추한철(추선우) 홍기철(고난홍)

● 일천번제(9월 18일 기준)

강효중(이만순)(2435) 권모세(720) 권제홍(김은주)(867) 김상정(김상희)(482) 김수용(이선정) 김신철(정외자)(2719) 김영대(차연희)(3529) 김영일(김연순) 김옥희(1075) 노만수(박순분)(3478) 도상원(1544) 문무홍(권현자)(690) 박성찬(장희영)(687) 박진성(정영혜)(841) 소병국(박진희)(48) 신이건(김해옥)(2096) 양나경(968) 양양춘(4) 염동용(윤영심) 오영희 이미숙 이보수(노정숙) 이성만(정영희)(165) 이순아(2958) 이정곤(신현미)(2129) 임기남(3186) 임승호(오영숙) 장영심(119) 정성운(이은경)(679) 정순근(송은주) 정순애 주선덕 주희정 진도성 최규하(4385) 최승렬(정미숙) 최재인(정채윤) 한옥희(522) 무명3

● 생일헌금 강효중 곽유자

● 전도특별헌금

강문순 강문옥 김영대(차연희) 김영진 이경숙B 이말임 이춘애 전벽산(윤종순) 정순애 정주혜

● 가정예배감사헌금 정낙연

● 건축헌금 노만수(박순분) 이영숙 정순근(송은주)

● 선교헌금

권영자 권태홍(황정숙) 김봉숙 김영대(차연희) 김영진 김용숙 김자영 박재경(김옥순C) 이말임 이미숙 이병수(김옥희) 이수남 이영선 이춘선 이필란 임기남 장정희 전벽산(윤종순) 정외자(김재형) 정주아 정주혜 정현점 조의명(이춘애) 조종임 진원옥 한옥희

● 구제헌금

김명순 박귀남 양영란(강규복) 이영숙 정동현 정순근(송은주)

● 비전헌금

권태홍(황정숙) 김봉숙 김영대(차연희) 김영진 박재경(김옥순C) 백철수 이미숙 이병수(김옥희) 이수남 이필란 임기남 장정희 전벽산(윤종순) 정외자(김재형) 정현점 조의명(이춘애) 진원옥 한옥희

교회 소식

▶ 성령강림절 후 열다섯째주일(예전색깔: 녹색)

▶ 10월 26일 "함께 교회 가는 날"입니다

* 기도함으로 지역주민에게 복음 전하고 초대하는 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9월 21일	태신자와 2차 만남주간 / 성찬식
9월 28일	전교인 노방전도 주일 / 온가족 예배
10월 5일	추석명절 / 가족전도 주간
10월 12일	전교인 특별새벽기도회(10/13~10/17) "주여! 나도 한 영혼 전도하게 하소서" 전교인 찬양기도회, 은혜나눔 10/17(금)
10월 19일	태신자와 3차 만남주간
10월 26일	함께 교회 가는 날! "지역주민과 함께 예배 드리기"

▶ 이번주간은 태신자와 2차 만남주간입니다

* 태신자 초청을 위한 2차 전도물품 -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 성찬식: 1부, 2부예배 시

▶ 남·여전도회 월례회: 2부예배 후, 각 월례회 장소

▶ 정기당회: 다음 주일(28일) 2부예배 후, 당회실

▶ 온가족 예배: 다음 주일(28일) 2부예배 시

▶ 전교인 노방전도

* 모임시간: 다음 주일(28일) 점심식사 후(12시 50분), 본당 (교회출발:오후 1시)

* 전도지역: 암남공원, 송도바닷가, 송도인근 버스정류소

▶ 청년부 단합대회: 27일(토) 김해 (교회출발: 9시)

▶ 입원: 2-6구역 조의명 은퇴집사(이춘애 은퇴권사 부군) - 동아대병원
4-5구역 김예남 집사 - 울산 더 프라우병원

예배위원 및 식당담당

	이번주일(9/21)	다음주일(9/28)
안내위원	양명순 한영숙	김상희 오영숙
헌금 위원	1부 김종안 임승호	장현기 유대일
	2부 최승렬 소병국	이정곤 박인철
식당담당	김경숙 정영혜 최영숙 한 현 이경숙 김은임 김옥남 모경애 김연숙 김상희 소병국 유대일 정성운 김길수	양명순 모경애 김유자 최경희 이선옥 오영희 서임순 황금선 남상영 장현기 박인철



제74권 38호 2025년 9월 21일

< 은성교회 비전 >

< 2025년 총회 표어 >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은성교회!! (요 3:16)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주일예배

1부 : 오전 9:00

2부 : 오전 11:00

* 개회찬송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예배의부름 송 영

* 참회와선언 인도자

* 교 독 문 91번(성찬1)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285장

감사와도고 조광조 장로

성 경 봉 독 요한복음 13장 1절~11절(신약169쪽)

찬 양 1부: 할렐루야 찬양대 "내 영혼이 은총입어"
2부: 샬롬 찬양대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 씬 선 포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성 찬 식 집례: 담임목사

봉 헌 425장

교회생활안내 인도자

* 결단의찬송 "살아계신 주"(1,3절)

* 축 도 담임목사

※ 다음주일 기도 도상원 장로

49262 부산광역시 서구 해동리로 22번길 3-4
TEL 256-3918, 241-3927 FAX 241-7232
<http://eschurch.or.kr> 담임목사 홍기철

오 후 찬 양 예 배

오후 2:30

찬	양	IL찬양단
기	도	장현기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다니엘 10장 10절~21절(구약1251쪽)	
찬	양	모든 열방 주 볼때까지 / 할렐루야 찬양대
말	씀	큰 은총을 받은 사람 / 김성민 목사
찬	송	310장
교 회 소 식	담임목사	
축	도	담임목사
※ 다음주일 기도	이종재 안수집사	

수 요 예 배

I 부: 예배(오전10:00)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찬	송	80장		
기	도	장희영 권사		
성 경 봉 독	사무엘상 7장 12절~14절(구약418쪽)			
말	씀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찬	송	370장		
교 회 소 식	김성민 목사			
축	도	김성민 목사		
II 부: 경로대학 특별활동				
※ 다음수요 기도	김경숙 권사			

금 요 성 령 기 도 회

오후 8:30

찬	양	코람데오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23장 44절~46절(신약138쪽)		
말	씀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	도	회	합심기도 및 개인기도
축	도	담임목사	

새 벽 기 도 회

월~금 오전 5:30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46:5)

가 정 예 배

1. 사도신경: 다함께
2. 찬송: 358장 1,2절
3. 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11절
4.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화살이 과녁을 빗나가듯, 인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마귀는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온갖 사특한 일을 꾸미고 죄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첫째, 마귀는 우리를 죄짓는 장소로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마귀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접근하여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는 직접 선악과를 따 먹고 아담에게도 먹게 함으로써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인이 되고 말았습니다.(창 3:1~6) 삼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실인으로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께 바친 성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같이 찢어 버리고(삿 14:6)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천 명을 죽일 정도로 위대한 용사였으나(삿 15:5~6),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이방 여인 들릴라의 집을 찾아가면서 죄를 짓게 되었고 결국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삿 16:4~21) 성경은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시 119:101)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가지 않으려면 절대로 유혹의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합니다.

한 알코올 중독자가 뼈를 깎는 고통을 치르고 간신히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무더운 여름날 TV의 맥주 광고를 보는 순간, 자주 다니던 술집이 생각났습니다. 음주의 충동을 견디지 못한 그는 술집으로 달려가 맥주를 별척별척 마셨습니다. 그동안의 피나는 수고가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이전보다 더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생각을 사로잡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하

나님의 말씀에는 둔감해지고 음란과 폭력을 다루는 서적이거나 대중 매체에 더욱 흥미를 갖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롬 1:28)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롬 12:2),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행하여야 합니다.(벧전 3:15)

셋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행자에게 길을 안내해 주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시 119:9),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시 119:11)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조그마한 잘못이라도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어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5. 기도: 설교자

6. 헌금: 358장 3,4절

7. 헌금기도

8. 주기도문: 다함께

향기로운 예물

【온라인 헌금 계좌: 신한은행 100-026-219764 / 예금주: 은성교회】

●십일조

강선희 권모세 김영대(차연희) 김영진 김용숙 김자영 김태홍(정외자) 박건자(김영옥) 박남수(이미숙) 박재경(김옥순) 백철수(이말임) 손은미 오태자 원정희 윤영심 이상덕 이상열(장미은) 이수남 이영선 이은경 이은숙 이종재(모경애) 임기남 장정희 전벽산(윤종순) 정동현(옥물자) 정순애 정승호 정주아 정주혜 정현점 조의명(이춘애) 조종임 한옥희